

申之悌의 酬唱詩를 통해 본 영남 학맥 소통의 一斷面*

김기엽**

■ 국문초록

지역 문인의 소통은 대개 해당 학맥을 구성하는 문인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지만, 문학 활동은 작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酬唱 방식도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이에 『梧峯集』의 酬唱詩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망에 주목하고, 영남 학맥을 洛上의 退溪學·洛下의 南冥學·洛中の 寒旅學 등으로 세분화하여 申之悌의 교유와 학맥, 酬唱 방식 등을 살폈다.

年譜에 밝혀진 李滉 제자들과의 일화를 비롯하여 金富倫의 詩軸에 步韻한 작품, 琴蘭秀와 청량산을 유람하며 金桐과 分韻의 방식으로 수창한 일들을 통해 신지체가 退溪學脈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 활동은 학맥에 구애되지 않았다. 鄭述의 문인 李潤雨와 呼韻으로 수창하고, 張顯光을 중유한 李民成·李民奐 형제와 詩會를 가졌으며, 처가인 咸安 지역의 문인들과 어울리며 사촌 처남인 趙任道와 用韻의 방식으로 수창하는 등 洛中の 문인들과도 활발히 교유하였다.

또한 曹植을 존송하는 시를 남겼던 申之悌는 南冥學脈의 郭再祐·呂大老·朴瑞龜와 수창하였는데, 昌原에서 府使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朴瑞龜와 가장 많은 시를 수창하였다. 의성 출신의 신지체는 함안의 趙氏 문중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했으며, 전란 후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 창원에서 짧지 않은 고을살이를 하였다. 洛中·洛下의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주변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학맥을 뛰어넘는 교유와 문학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제어: 酬唱, 學脈, 李滉, 曹植, 鄭述, 張顯光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수료 / E-mail: sinchay@hanmail.net

1. 머리말

예로부터 시는 성정의 순화나 외교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문인의 유대를 다지기 위한 모임에서 다른 문인들과 소통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 지성의 산물이었다. 타자의 시에 화답하는 양식의 酬唱詩¹⁾는 문학적 역량과 대상·장소·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권면·경계·교류·유대 확인·고양감 형성·역량 과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중기의 수많은 문인 중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梧峯 申之梯(1562-1624)는 퇴계·남명 학맥의 문인들과 두루 어울리며 많은 수창시를 남긴 인물이다. 그의 학맥과 사승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퇴계 학맥의 金彦璣에게 배우고 金誠一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퇴계 학맥과 학풍을 조금 달리 했던 張顯光을 중유하고 남명 학맥의 학자와 교류하는 등, 영남의 여러 학풍을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이는 신지체의 부인 趙氏가 남명 학맥이 주류를 이루었던 咸安 지역 출신이고, 또 신지체가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낙동강 하류 일대의 문인들과 어울렸다는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문인의 소통은 대개 해당 학맥을 구성하는 문인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지만, 문학 활동은 비교적 작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수창 방식도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신지체는 이황의 급문제자인 金誠一을 스승처럼 여겼고 金富倫과 趙穆 등을 학맥의 웃어른으로 따랐는데, 『梧峯集』에서 鄭述·張顯光의 문인, 呂大老·朴瑞龜·李

-
- 1) 酬唱에는 개별적인 晤論·勸勉을 대신하는 양태와 집단적 만남인 詩會의 양태가 있다. 晤論 혹은 勸勉을 대신하는 양태로서 발달한 것이 次韻이다.(심경호, 「문자와 매체: 조선 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6면.) 『梧峯集』에 수록된 작품을 다루는 본 연구는 집단적 만남인 시회의 양태와 개별적인 차운의 양태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회의 성격이 드러나거나 개별적으로 차운한 작품군을 ‘酬唱詩’라 칭한다.
 - 2) 심경호, 「『梧峯先生文集』 해제」, 『오봉선생문집』 권1, 한국국학진흥원, 2019, 23~71면. 이 해제에서 『梧峯集』에 실린 수창시를 정리하고, 경상좌도와 우도의 학맥을 소통시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安訥 등의 시에 수창한 작품들을 통해 그의 문학적 교류가 특정 학맥이나 직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의 사상 연구도 최근에는 영남학과를 퇴계와 남명의 두 거대 학맥으로 양분해 왔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지역 유학들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세분화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³⁾ 이에 지역 문인들의 폭넓고 활발한 교류와 학파적 유대, 문학 활동 또한 지역 유학의 세분화된 논의를 반영하여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신지제의 생애와 업적을 토대로 가계와 학문 경향, 전반기 의병 활동을 다룬 연구⁴⁾가 이루어졌고, 문학 영역에서는 시를 중심으로 『梧山雜詠』에 나타난 정서, 교유 양상을 다룬 연구⁵⁾가 진행되었다. 『梧峯集』에 나타난 신지제의 수창은 次韻(步韻)·用韻·分韻·呼韻·點化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창 대상은 해당 학맥의 문인에 구애되지 않아 학맥을 뛰어넘는 교류의 일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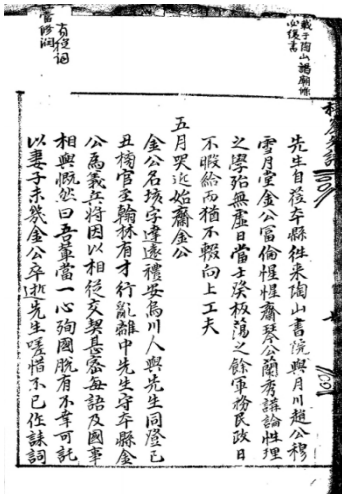
여기서는 신지제가 개별적으로 차운하거나 사회에서 남긴 시를 학맥, 개별 관계망, 수창 양상이라는 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피려 한다. 지역 유학에 대한 사상 연구의 논의를 반영하여 학맥과 관계망을 고찰하고, 『梧峯集』에 실린 交遊詩 중 次韻(步韻)·用韻·分韻·呼韻·點化 등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다루면서, 영남 학맥의 교류와 신지제의 시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수창의 양상을 엿보고자 한다.

-
- 3) 홍원식, 「조선 중기 낙중학과 정구의 ‘한강학」, 『한국학논집』 48, 계명대한국학연구원, 2012, 7~22면.
 - 4) 장필기,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88호, 한국사학회, 2007, 685~718면;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영남문화연구원, 2019, 179~211면; 신수식,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임진란의 병활동」, 성문기획, 2020.
 - 5) 줄고, 「梧峯 申之梯의 生涯와 詩에 표출된 鬱結의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76, 한국한문학회, 2019, 337~374면; 「申之梯의 詩에 나타난 交遊 양상 연구」, 『민족문화』 제5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0, 233~267면. 위 논문(2020)에서 신지제의 수창을 교유시의 범주에 넣어 교유 양상과 학맥을 함께 다루고자 했으나, 지면의 제약과 신지제의 학맥을 보다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별도의 논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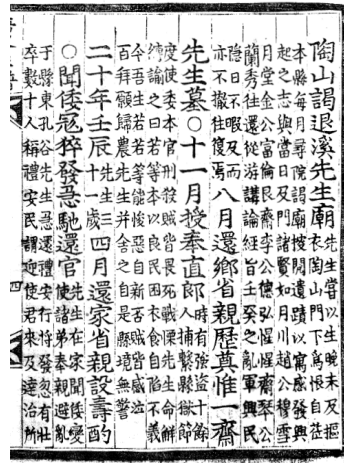
2. 신지제의 사승과 퇴계 학맥

신지제가 스승으로 섬기거나 교류했던 문인들은 연보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연보에 의하면 13세에 惟一齋 金彦璣에게 가서 학문을 익혔으며, 과거 시험을 치르고 벼슬에 올랐을 때 중앙 요직에 있던 柳成龍과 金誠一에게 인정을 받았다.6) 예안에 부임한 뒤로는 전란 속에 민심을 수습하면서 趙穆·金富倫·李德弘·琴蘭秀 등과 성리학을 강론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招諭使 金誠一과 의병대장 金垓가 죽자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를 지었고, 관찰사 洪履祥이 청량산이 왜적을 방비할 거점으로 삼기에 적당한지 살피기를 요청하자 孤山에 은거하던 金난수와 동행하여 청량산의 형세를 둘러보았다. 연보에 언급된 스승 金언기를 비롯하여 류성룡, 金성일, 조목, 金부륜, 이덕홍, 金난수 등은 모두 이황의 급문제자들이다.



〈자료 1〉 연보 草記7)



〈자료 2〉 『梧峯別集』 연보8)

6) 졸고(2020), 236면, 『梧峯別集』, 『梧峯年譜』.

7) 『古文書集成』 권77, 『의성이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6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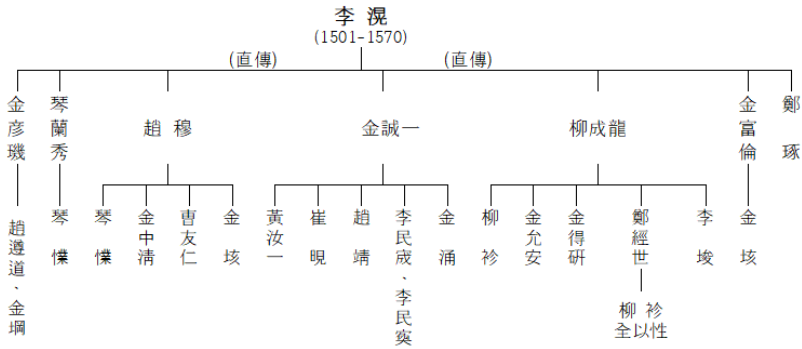
신지제의 연보 草記 <자료 1>과 편집 후 간행된 『梧峯別集』 연보 <자료 2>를 대조해 볼 때, 草記에 보이는 꼼꼼한 수정·보완의 흔적들은 간행까지 많은 교정을 거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보 草記를 보면 조목·김부륜·금난수와 성리학을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교정과 보완을 거친 뒤에 간행된 『梧峯別集』의 연보에는 조목·김부륜·금난수와 함께 良齋 李德弘이 추가되어 있다.

『梧峯集』에 수록된 작품에는 신지제가 조목·김부륜·금난수·김성일·류성룡 등의 이황 문인들과 어울렸던 내용이 전하는데, 유독 이덕홍만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문집의 작품에는 대개 작자와 교유가 있었던 문인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문집의 작품을 통해 교유의 범위와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다. 『梧峯集』의 작품에 나타난 관계망과 부합하는 <자료 1> 연보 草記의 서술이 <자료 2> 편집된 별집의 연보보다 신지제의 교유 실정에 더 가까워 보인다.⁹⁾

草記에 없었던 이덕홍의 이름이 별집의 편집과정에서 들어간 것은 신지제의 학맥과 교유를 이황 문인에게 긴밀하게 결속시키려는 별집 편집자(6세 후손 申體仁)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梧峯集』의 별집을 개편하고 간행한 후손 晦屏 申體仁(1731-1812)이 영남에서 퇴계 학맥의嫡傳으로 자부하는 大山 李象靖(1711-1781)의 문인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8) 申之梯, 『梧峯別集·單』, 『梧峯年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9) 신지제가 이덕홍과 어울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작품이 있었다면, 이덕홍처럼 퇴계 학맥에서 큰 입지를 가진 인물과 유관한 글은 필시 『梧峯集』에 수습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덕홍의 『良齋集』에 실린 작품에도 신지제와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황 학맥의 결속이라는 맥락에서 ‘정인홍이 합천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6년 동안 (신지제)선생은 한 번도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라는 행장과 연보의 서술은 신지제 사후에 문집이 편집될 때 남명 학파를 대표하는 정인홍과 거리를 두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중사를 저지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다가 金鎭과 유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사건, 인조반정 이후 영남에서 상대적으로 남명 학맥이 위축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지제가 평소 남명 학맥의 문인들과도 어울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지제 당대의 교유는 학맥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위주로 성립되었는데, 신지제 사후에 후손에 의해서 문집이 편집될 때 편집자가 지향하는 학맥이 고려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신지제의 문집에서 영향 관계를 보이는 洛上の 문인¹⁰⁾

〈표 1〉은 『梧峯集』에 실린 시, 제문, 만시, 서찰 등에서 신지제와 접점이 보이는 이황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及門弟子 및 私淑, 血緣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스승의 죽음, 移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스승에게 執贄한 문인들은 비록 사승 관계가 중복되더라도 모두 기재하였다. 부자, 친숙이라는 혈연 또한 사승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신지제와 시를 수창한 이들 중에 김언기(1520-1588)의 아들 김득연(1555-1637)은 류성룡(1542-1607)으로부터, 금난수(1530-1604)의 아들 금업(1557-1638)은 조목(1524-1606)으로부터, 류성룡의 아들 류진(1582-1635)은 정경세(1563-1633)로부터, 김부륜(1531-1598)의 조카 김해(1555-1593)와 김강(1558-1595)은 조목·김성일·류성룡과 김언기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다.

신지제는 어릴 적 수학했던 김언기를 비롯하여 금난수·조목·김성일·류성룡·김부륜·정탁 등 이황의 高弟들과 時事를 논하고 眞情을 구하며 웃어른으로 존경하였고, 그들의 자제 및 문하생들과 시를 수창하면서 어울렸다. 金富倫과는 서로 왕래하며 술에 취해 수창한 시와 雅會의 풍류를 즐긴 작품들이 남아 있어¹¹⁾ 두 사람의 각별한 친분을 짐작할 수 있다.

10) 『梧峯集』에 언급된 문인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구부, 2002)와 각 문인의 문집에 실린 行狀·師友錄·門徒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이하의 정구, 장현광의 학맥도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높은 산 우러르듯 지나 깨나 그리웠는데	景仰高山夢寐頻
바위틈 매화와 시내의 달은 옛 기풍일세	巖梅溪月舊風神
후생이 배울 만한 곳이 어찌 없으리오	後生私淑寧無地
선보에서 스승을 따를 이 아직 있다네	單父從師尚有人

위 시는 술을 들고 방문한 김부륵이 同榜 詩會의 시축을 보여주자 신지제가 술에 취한 채 화답한 2수 중 두 번째 작품이다.¹²⁾ 2수 모두 ‘眞’ 자 운목의 類·神·人을 운자로 사용하였다. 제목의 ‘步鍾離先生韻’이라는 구절을 통해 당나라 鍾離權의 시¹³⁾에 步韻한 시이며,¹⁴⁾ 당시 同榜 詩會의 詩會이 보운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起句의 景仰과 高山은 『詩經』 「車牽」에서 유래한 말로 스승을 높일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轉句에서 자신을 후생으로 자처하고 結句에서 單父 고을의 수령으로 나간 孔子 제자 宓子賤에 자신을 빗대

-
- 11) 신지제 著, 김기엽·김홍구·천성원 譯, 『오봉선생문집』2 : 「가야로 가는 도중에 술을 들고 오는 설월당 어른을 만나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 나누다가 술에 취해 절구 한 수를 읊다[將往佳野 路上見雪月丈佩酒而來 坐話沙頭 醉吟一絕], 「즐거운 놀이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내가 슬쩍 자리에서 빠져 나와 관아로 돌아왔는데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우연히 짧은 시를 짓고 이를 기록하여 설월당 연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올리다[清歡政治 賤行輕發 還投公廡 月色如畫 偶有短句 錄呈雪月堂筵上諸位], 이 글에서 인용한 신지제의 시들은 『오봉선생문집』 권1·2, 한국국학진흥원, 2019의 번역을 참고한 것이다.
- 12) 신지제 著, 앞의 책2, 291~292면 : 「설월당 어른이 술을 들고 찾아와 잠시 앉아 있다가 소매에서 시 몇 폭을 꺼내 보여 주었는데, 바로 鍾離先生의 시에 차운하여 동년 급제자 모임에 기념한 것이었다. 좌중에서 화답한 이가 많아 취중에 아무렇게 두 편을 짓다[雪月丈佩酒枉顧 坐頃袖出詩累幅示之 乃步鍾離先生韻 記榜會事也 座中多和者 醉中亂草二篇]
- 13) 『全唐詩』, 「장안의 술집 벽 절구 3수에 쓰다[題長安酒肆壁三絕句]」 중 3수 : 莫厭追歡笑語頻, 尋思離亂好傷神. 閒來屈指從頭數, 得見清平有幾人.
- 14) 수창 방식에서 和韻은 다른 사람의 시와 동일한 韻目에 속하는 韻字를 쓰는 依韻, 같은 운자를 쓰되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用韻, 原詩의 운자를 순서까지 그대로 쓰는 步韻(次韻)이 있다.(강민호, 「압운(押韻)의 미학으로 본 차운시(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원백(元白)과 소식(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제72권, 2012, 49~74면.)
- 15) 심경호, 위의 논문 : 詩會에서는 주홍을 돋우기 위해 詩會를 시행하는데 각자가 운자를 뽑아서 시를 짓는 分韻, 같은 제목으로 전원이 시를 짓는 競作, 전원이 집단으로 창작하는 聯句, 다른 사람이 운자를 부르는 대로 시를 짓는 呼韻, 특정한 글자를 딴 사람이 부르는 대로 시 속에 사용하여 짓는 呼字 등이 있다.

어 김부류를 같은 학맥의 문인이자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김부류의 조카인 金峯(1558-1595)과 수창한 시에는 이황의 고제인 惺惺齋 琴蘭秀(1530-1604)도 등장한다. 신지제는 1594년에 군사 거점의 확보를 위해 淸涼山으로 형세를 살피러 떠난 적이 있는데, 이때 금난수와 김강을 만나서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고 시를 남겼다.

.....

열 두 봉우리 늘어서니	列作十二峯
멋진 경관 제일을 차지했네	奇勝擅第一

.....

같이 유람하는 김기중은	同遊金器仲
예부터 풍류 함께 한 사람이라	夙昔風流匹
지나다 일동 어른 찾아가니	歷問日洞老
길이 물고기, 새와 노니네	長與魚鳥逸

.....

신지제가 金峯에게 준 위 시의 제목은 「金峯과 ‘천길 산 위에서 한번 옷을 던다[千仞岡頭一振衣]’라는 구절을 가지고 운자를 나누어서 ‘千·岡·一·衣’ 등의 운자를 얻어 짓다」이다.¹⁶⁾ 제1수는 ‘千’ 자 운목의 7언 절구,¹⁷⁾ 제2수는 ‘岡’ 자 운목의 7언 절구,¹⁸⁾ 제3수는 ‘一’ 자 운목의 5언 27운, 제4

16) 申之梯, 『梧峯集』 卷1, 「與金器仲【峯】, 分韻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제목에서 이 시가 分韻으로 운자를 정하여 지어진 시임을 알 수 있다. 分韻의 대상인 ‘千仞岡頭一振衣’는 朱熹가 지은 시의 한 구절로 산에서 느껴지는 호연함을 표현한 말이다. 썸나라 左思(276-324)의 詠史 8수 가운데 “천 길 산 위에서 옷 먼지 털어 내고[振衣千仞岡]”에서 유래하였으며, 장쾌한 심정을 나타내는 명구로써 이색·정몽주·권근·김종직·박상·정철·이식·이황·이현보·류성룡·정사룡·김창협 등 수많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재구성되었다.

17) 申之梯, 『梧峯集』 卷1, 「與金器仲【峯】, 分韻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1수 : 飛鳥歸來不住天, 應須行到最高巔. 煙霞草木無窮好, 絕壑奇巖氣萬千.

18) 申之梯, 『梧峯集』 卷1, 「與金器仲【峯】, 分韻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2수 : 試躡

수는 ‘衣’ 자 운목의 7언 절구¹⁹)로 이루어졌다. 위에 인용한 시는 제3수 27운의 일부로 ‘一’ 자를 운자로 넣은 구에서 청량산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유람에 동참한 器仲은 金峯의 자인데, 김강은 이황에게 수학한 金富信의 아들이며, 신지체가 師事했던 김언기의 문인이기도 하다.

시에서 지나가다 들렀다는 ‘일동 어른[日洞老]’은 금난수를 말한다. 신지체는 청량산으로 향할 때 김강과 합류하여 孤山에 들렀으며, 고산에 있던 금난수와 함께 청량산을 유람한 뒤 금난수에게 이별의 시를 증여하고 「遊清涼山錄」라는 유람기를 남겼다.²⁰ 이 「遊清涼山錄」에는 이황·김성일·金核의 시가 적힌 시축, 신지체의 학맥, 교유에 대한 대목이 보인다.

金峯은 곤하게 잠들고 나는 혼자 앉아서 중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중들이 앞 다투어 시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 시축에 退溪 선생의 시가 두어 편이 있었고 鶴峯 선생의 시도 여러 수가 있었으며 達遠(김해)의 시도 있었다. 아, 퇴계 선생은 내가 공경하고 사모하여 배우기를 원했던 분이고 학봉 선생은 내가 스승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다. 김해는 나의 유익한 벗이자 경외하는 벗으로 나와 서로 사이가 좋고 매우 돈독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나와 함께 이곳을 유람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루지 못한 채 전란이 일어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一勳이라는 어떤 중이 내가 몸이 나른하여 졸려 하는 것을 알고 椒茶를 끓여 와서 주었다.²¹

신지체가 이황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김성일을 스승으로 섬겼다는 自述에

清涼興未央, 此來情境亦清涼. 不知眼界寬多少, 大地平看一萬岡.

19) 申之梯, 『梧峯集』 卷1, 「與金器仲【峯】, 分韻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4수 : 碧石丹楓面面圍, 山中無物不清奇. 何年解却腰間綬, 瀟灑巖頭伴羽衣.

20) 졸고(2020), 239~241면.

21) 申之梯, 『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 器仲困睡, 余獨坐與諸僧語, 諸僧爭持詩軸來示. 軸中有退陶詩數篇, 有鶴老詩累首, 又有達遠詩. 嗚呼! 退陶吾所敬慕而願學者, 鶴老吾所師事而今化爲古人. 達遠吾益友也畏友也, 與余相好甚篤者也. 嘗與余約遊於此, 未果兵禍起而卒之逝. …… 有僧名一勳, 知我氣疲思睡, 作椒茶來饋.

서 그의 학맥 연원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학적인 교류는 김성일을 애도하는 제문 1편과 김성일의 시에 차운하여 勳이라는 승려에게 준 시만 남아 있고²²⁾ 신지제가 김성일과 생전에 직접 수창한 시는 보이지 않는다. 『遊清凉山錄』에서 신지제가 돈독한 사이로 밝힌 金垓는 김성일·조목·류성룡에게 수학한 인물로, 임진왜란 때 의병 대장을 맡아 왜적을 방지하다가 경주의 진중에서 순국하였다. 『梧峯集』에는 신지제가 김성일의 시에 차운한 작품에 이어서 「또 승려 훈에게 주다[又贈勳師]」라는 제목으로 金垓를 그리워하는 시가 실려 있다.²³⁾

3. 洛中·洛下 문인과의 結緣과 소통

1) 洛中의 문인과 수창한 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 지역의 학맥은 크게 안동을 중심으로 한 洛上의 퇴계학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洛下의 남명학으로 양분하여 인식해 왔다. 그러나 낙동강 중류에서 유학을 주도하며 출현한 寒岡 鄭述·旅軒 張顯光 두 儒賢의 사상을 계승하는 문인 집단을 洛中の ‘寒旅學’이라는 독립된 하나의 학맥으로 분화하여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는 문하로 이어진 학맥보다 道統에 주목하여 정몽주-길재-김굉필로 이어지는 낙중 선현의 계승을 주된 논의로 삼고 寒旅學을 퇴계·남명학과 대등한 위치, 혹은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²⁴⁾ 또한 寒旅學을 정구의 寒岡學과 장현광의 旅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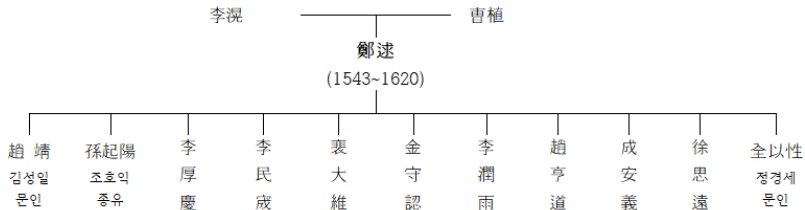
22) 申之梯, 『梧峯集』 卷1, 「次鶴峯先生【金公誠一】韻贈勳師」: 古館春岑寂, 僧來亦一奇. 吾家元有事, 爾道本無爲. 墨行慙儒行, 新知勝舊知. 他時白蓮寺, 與汝欲深期.

23) 신지제 著, 위의 책1, 97-98면: 「또 승려 훈에게 주다[又贈勳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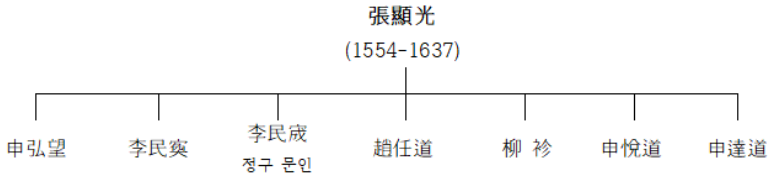
옛날에 나의 벗 낙원자가	昔者吾友洛園子
청량사에서 두견 시를 읊었네	清凉寺中賦杜鵑
죽은 삼 년 간 항상 슬픔에 사무쳤는데	死別三年常惻惻
그때 지은 시를 그때가 전하는구려	當時題句爾來傳

學으로 변별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²⁵⁾

굳이 사상적 학문 연원과 갈래를 깊이 따지지 않더라도 정구가 이항뿐만 아니라 조식도 배알하였으며,²⁶⁾ 장현광이 퇴계학에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한 것²⁷⁾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영남 학맥을 세분화하여 퇴계학과 학맥을 조금 달리하는 寒岡·旅軒의 계열을 洛中으로, 남명 학맥에 영향을 받은 문인을 洛下로 구분하고, 신지제가 각 계열의 문인들과 수창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 24)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嶺南學』 제21권, 영남문화연구원, 2012, 45~78면. 정인홍과 대립하면서 정구를 중심으로 한 낙중학이 단일화되고, 이후 장현광에 의한 영남 理學과 허목에 의한 근기 실학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았다. 홍원식, 「조선 중기 낙중학과 정구의 ‘한강학」, 『한국학논집』 제48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7~22면. 정몽주 길재에 의해 낙동강 중류에 뿌리 내린 낙중학은 김굉필을 거쳐 이항과 조식에게 계승된 한편 김굉필의 외증손인 정구에게도 이어졌으며, 정구는 김굉필의 도통 위에 퇴계학과 남명학을 함께 계승·종합한 것으로 보았다.
- 25) 한강학과 여헌학이 퇴계학을 계승한다는 기본 입장을 공유하되, 한강학은 심학과 예학을 통한 明體適用에 정체성을 두며, 여헌학은 역학과 성리학을 통한 明體適用에 정체성을 둔다는 점에서 변별된다고 한다.(홍원식, 앞의 논문, 2012; 추계협, 「‘한려학과’와 ‘여헌학」, 『한국학논집』 제52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59~88면)
- 26) 정구는 21세에 이항을 배알하고 24세에 조식을 배알하였다. 조식의 영향 외에 정구 문하의 허목이 성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기호남인의 학통에 영향을 끼친 것 또한 낙중의 한강학과 낙상의 퇴계학이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27) 理氣心性論에서 理와 氣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장현광의 理氣經緯說은 理와 氣를 일원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理와 氣를 이원적으로 인식한 이항과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율곡에 가까워 보인다. 이 때문에 퇴계학파의 李渠, 李玄逸 등이 장현광을 비판한 바 있다. (김용현, 「퇴계학파의 여헌 장현광 비판에 대한 연구」, 『퇴계학보』 제123권, 퇴계학연구원, 2008, 55~98면)



<표 2> 신지제의 문집에서 영향 관계를 보이는 洛中의 문인²⁸⁾

특정 문하의 제자라 하더라도 한 스승만 執贄하는 것은 아니다. 신지제가 자처한 퇴계 학맥의 사승은 차치하고 그의 교유는 퇴계와 남명 어느 한쪽의 학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지제의 혈연인 아들 申弘望(1600-1673)과 문중의 邑派인 申達道(1576-1631)·申悅道(1589-1659), 의성 출신의 동향 문인인 李民成(1570-1629)·李民奭(1573-1649), 처가 문중의 趙任道(1585-1664) 등은 장현광을 師事하였다. 문집에 수창시가 남아 있는 成安義(1561-1629)·趙靖(1555-1636)·李潤雨(1569-1634) 등은 鄭述에게 배웠으며, 신지제도 직접 정구와 어울리며 시를 수창하였다.

맑은 강가 햇빛 백사장에 비치는데	晴江日色動明沙
가볍게 노 저어 저녁 물결 따라 떠나네	柔櫓輕橈任夕波
무엇보다 좌중에 불편한 사람 없고	最是坐間無白眼
한바탕 펼쳐진 승경 많을수록 좋구나	一場奇勝辦多多

위는 중수된 觀海亭에서 寒岡 鄭述(1543-1620)와 뱃놀이를 즐기면서 지은 시²⁹⁾로, 呼韻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호운은 남이 불러주는 운자에 맞

28) 『梧峯集』에 언급된 문인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구부, 2002)와 각 문인의 문집에 실린 行狀·師友錄·門徒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29) 신지제 저, 위의 책1, 376면 : 「배 안에서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고 판관(半刺) 이윤우【호가 석담이다】가 부르는 운을 써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드리다【舟中陪寒岡先生【鄭公述】奉贈左右諸位 用李半刺潤雨氏【號石潭】呼韻】」

추어 짓는 방식으로, 정구 문하인 李潤雨(1569-1634)가 불러주는 운자대로 신지제가 지은 것이다. 관해정은 정구가 1604년 창원에 지었던 정자로 줄여서 海亭이라고도 하며, 신지제가 1613년에 관해정이 있는 창원에 부사로 부임하면서 정구와 접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13년이 지나 남아버린 정자를 창원의 선비들이 협력하여 1617년 3월에 중수할 때, 서찰로 정구의 부탁을 받은 신지제가 봉급을 보태어 공사를 도왔다고 한다.³⁰⁾

勝景이 풍부한 관해정에서 白眼視할 사람이 없는 연석의 흥을 나타낸 轉句의 ‘最’ 지는 정구를 비롯한 문인들과의 각별한 친분을 드러내준다. 李潤雨가 정구를 수행하여 蓬山의 온천에 다녀와서 지은 『蓬山浴行錄』³¹⁾에는 당시 유람을 함께했던 문인들의 수창시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위 작품은 『梧峯集』에 다른 제목으로 실려 있으나, 아래의 시와 운자가 일치하며 첫 구가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같은 雅會의 자리에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맑은 강가 흰 모래톱에 햇빛이 일렁이는데 晴江日色動明沙
 석양에 은빛 물보라 일으키며 노 저어 가네 銀沫飛空槽夕波
 정장의 빈객 자리에 외람되지 끼었으니 猥忝鄭莊賓客地
 천 년 전 신선 뱃놀이에 비해 누가 나올지 仙舟千載較誰多

이 시는 景釀臺 아래에서 李潤雨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³²⁾ 이운우의 原詩는 『石潭集』 권1에 실려 있다.³³⁾ 경양대는 함안의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서쪽 절벽을 말하는데, 小注에 정구가 뱃놀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30) 『梧峯集』 年譜 : “정 선생이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 ‘바닷가에 예전부터 나의 정자가 있는데, 이제 들으니 고을의 후생들이 새로 지어 강학할 계획이라고 하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유념하여 살펴줄 것이라 믿네.’라고 하였다.[鄭先生貽先生書曰: ‘海上曾有弊亭, 茲聞府下後生輩爲改構講學之計, 殊非易事, 竊想留念惠顧云云.』”

31) 李潤雨, 『石潭集』 卷4, 『蓬山浴行錄』

32) 신지제 著, 위의 책2, 319면 : 「경양대 아래에서 이운우의 시에 차운하다[景釀臺下 次李茂伯【潤雨】韻]」

33) 李潤雨, 『石潭集』 卷1, 『景釀臺下舟中』 : 十里淸江兩岸沙, 風颺高掛白鷗波. 誰知一席同人會, 俯暢遙吟逸興多.

轉句의 鄭莊은 漢나라 사람 鄭當時로, 太史를 지낼 적에 문인에게 훈계하여 “손님이 찾아오면 귀천을 가리지 말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이가 없게 하라.”라고 했다고 한다. 신지제가 이윤우와 정구의 뱃놀이에서 스스로를 빈객으로 자처하고 외람되이 끼었다고 한 것은 정구의 문인들 속에 외부인처럼 참여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 鄭當時의 고사를 인용하여 같은 문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없이 맞아준 정구 문인들과 정다운 뱃놀이의 흥취를 그려내었다.

신지제와 같은 의성 출신의 李民成·李民奩 형제는 10대에 김성일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김성일 순국 이후 장성해서는 장현광을 종유하였다. 이민환은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군병을 모집한 적이 있으며,³⁴⁾ 이민성은 51세에 정구의 죽음을 애도한 뒤 이듬해에 장현광을 따라 冰溪書院에서 經義를 講論하였다.³⁵⁾

신지제는 고향 의성에서 이민성·이민환 형제를 비롯하여 유생들과 전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시를 수창하였으며,³⁶⁾ 의성 현감의 주도하에 雲谷寺에서 신녕 현감 全以性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이민성과 가서 이야기 나누고 돌아온 일을 시로 읊었다.³⁷⁾ 또한 뱃놀이에 이민환과 전이성이 참여한 것을 기뻐하며 조식의 문인인 朴瑞龜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³⁸⁾ 여기서 전이성은 류성룡의 제자 鄭經世의 문인이지만 정구에게도 학문을 배웠다고 하며, 류성룡의 아들 류진은 잠시나마 장현광을 따랐었다고 하니, 이들의 수창과 관계망을 통해 당대 영남 문인들의 학맥에 구애되지 않는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34) 김성애, 「한국문집총간 『紫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9.

35) 김경희, 「한국문집총간 『敬亭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9.

36) 출고(2020), 260~261면.

37) 신지제 著, 위의 책1, 55면 : 「의성 현감이 편지로 운곡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신녕 현감 전성지는 어제 화산에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오기로 약속하였다. 관보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뒤에 그 일을 기록하다[地主書至 邀會雲谷 全新寧性之昨往花山 歸路約來 與寬甫併往參話 還後聊以記事]

38) 신지제 著, 위의 책1, 383면 : 「뱃놀이에 이장과 전이성 성지가 온 것을 기뻐하여 광문의 시에 차운하다[舟遊喜而壯性之【全公以性】來 次廣文]

신지제는 처가가 있는 함안 쪽의 문인들과도 교류하였는데, 당시 함안 지방의 문인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洛下의 남명학맥이나 洛中의 寒岡·旅軒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梧峯集』에는 신지제가 부인 조씨의 문중을 방문하여 洛中의 문인들과 어울리고 남긴 시가 수록되어 있다.

세찬 바람 지붕을 흔들고 비가 창문 뚫으니	獐羴掀屋雨穿窗
벽에 반쯤 걸린 심지 불이 한들거리네	一炷光搖半壁缸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노라니	坐到夜深人不寐
처마에 남은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네	響簷殘露落雙

위 시는 「趙遵道の 집에 가니 그날 밤에 바람이 거세고 비까지 내렸다. 趙亨道 등 여러 공 및 李俊成, 상사 李榦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읊다」³⁹⁾이다. 신지제는 趙址의 딸과 혼인하면서 자연스럽게 咸安의 여러 학자들과 어울렸다. 제목에 나타난 趙遵道·趙亨道는 신지제와 인척 관계이며, 이 중 조형도는 정유재란 때 신지제와 화왕산성을 함께 고수한 인물이다. 조형도는 鄭述에게 배워 퇴계학과 남명학을 겸습하였고 사촌 처남 趙任道는 張顯光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임도의 「就正錄」에는 경자년(1600)에 선친을 모시고 下川리에 있는 사촌 자형인 신지제를 방문했을 때 신지제가 그의 선친을 모시고 장현광을 중유하는 광경을 보았다는 대목이 나오며,⁴⁰⁾ 얼마 후 조임도 또한 仁同의 佳樂洞으로 이사한 뒤로 선친을 모시고 장현광의 문하에 왕래하며 중유하였다고 한다.⁴¹⁾ 조임도와 수창한 시는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의 시를 엮은 「檜山雜詠」에 실려 있다.⁴²⁾

39) 申之梯, 『梧峯集』 卷5, 「抵趙景行【遵道】家 是夜風惡且雨 與大而諸公及李秀卿 李上舍公直 對話偶詠」

40) 심경호, 위의 해제, 32~33면.

41)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卷9, 「附錄·就正錄」

42) 신지제 著, 위의 책1, 148면.

바닷가 산에 봄날이 따사로우니 海山春日暖
 누대에서 꽃과 대나무 어여쁘네 花竹媚臺亭
 물결 따라 갈매기 아득히 날고 逐浪鷗飛遠
 바람 탄 제비 사뿐히 춤춘다 乘風燕舞輕
 공무 여가에 잠시 틈을 내니 簿書偷暇日
 꽃과 버들이 한가로움 자아내네 花柳惹閒情
 어른과 아이 함께 한 벗이 있어 賴有冠童侶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 따르네 歡悅趁後生

제목은 「봄날 월영대에 놀리가면서 조생의 운을 사용하여 짓다[春日將遊月影臺 用趙生韻]이다. 수창은 운자를 순서대로 따라 지은 次韻(步韻)이 아니라 같은 ‘庚’ 자 운목의 운자를 활용하여 지은 用韻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月影臺는 신라 말 孤雲 崔致遠이 만년에 창원에 내려와 소요하며 강학했다는 곳으로, 신지체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함안 출신인 조임도가 찾아와서 월영대에서 함께 노닐었던 모양이다.

위 작품은 조임도의 『澗松集』 권1에 실려 있는 ‘庚’ 자 운목의 작품⁴³⁾을 통해 1614년 답청일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조임도가 선창한 原詩의 운자는 名·生·成·評이며 신지체가 수창한 위 시의 운자는 亭·輕·情·生으로 ‘庚’ 자 운목에 해당하거나 通韻이 되는 운자이다. 『梧峯年譜』의 ‘1614년 3월 3일에 조임도와 월영대에서 노닐었으며 수창시가 있다’는 기록은 바로 위의 시를 가리킨다. 『梧峯集』에는 위 시에 「春日遊月影臺」라는 제목의 ‘冬’ 자 운목으로 지은 시가 이어서 실려 있고, 『澗松先生續集』에 같은 운자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지은 조임도의 차운시⁴⁴⁾가 있어, 앞서의 조

43) 趙任道, 『澗松集』 卷1, 「갑인년(1614) 답청일에 오봉 어른과 함께 월영대에서 노닐다(甲寅踏靑同梧峯丈遊月影臺)」: 學士碑無字, 文昌郡有名. 風流賢太守, 江海老書生. 酒爲銷愁進, 詩因感古成. 仙臺亦消歇, 世事不須評.

44) 趙任道, 『澗松先生續集』, 「갑인년 답청일에 월영대에서 노닐며 신오봉 어른의 시에 삼가 차운하다(甲寅踏靑日 遊月影臺奉次申梧峯丈)」: 郡古餘頽堞, 臺荒沒舊蹤. 煙霞粧暮景, 桃柳媚春容. 發興詩爭筆, 消憂酒滿鍾. 仙區酬令節, 珍重我梧峯.

임도가 지은 시에 신지체가 用韻하고 같은 날에 신지체가 지은 시에 조임도가 차운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지체의 처는 함안에서 명망 있는 巨族을 이룬 趙氏 문중의 사람이며, 함안은 신지체가 외직으로 한동안 머물렀던 창원과 이웃한 지역이다.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처가 조씨 문인들의 왕래와 함안에 연고를 둔 지역 문인들의 문학적 교류는 변방 고을살이의 적적함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2) 洛下의 문인과 수창한 시

신지체의 사승이나 교류를 볼 때 그의 학맥 연원은 이황임이 분명하다. 다만 先儒로서 南冥 曹植(1501-1572)도 존숭하였다. 「꿈에 가야산을 찾아가올 기운이 서늘하고 산의 형세가 험준한데 고운과 남명을 생각하며 한참 동안 읊다[夢中過伽倻山 秋光淒爽 山勢料峭 思孤雲南冥 沈吟久之]」라는 제목의 7언 율시를 짓고, 조식의 깊은 학문과 매서운 기개를 안개와 노을, 절벽과 바위에 빗대어 칭송하였다. 또한 조식의 위패를 모신 新山書院을 방문하고 지은 시에서 조식이 제자들과 강학했던 山海亭을 ‘하늘이 낸 큰 스승이 홀로 와서 노닐 곳’으로 표현하고 조식의 풍격과 성망을 흠모하였다.⁴⁵⁾

신지체가 교류하며 수창한 洛下의 조식 문인으로는 郭再祐(1552-1617) · 呂大老(1552-1619) · 朴瑞龜(1546-1623)를 들 수 있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규합하여 함께 항전했던 郭再祐와는 전란 이후로도 교류를 지속하였다.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광재우의 忘憂亭을 방문하면서 시를 읊었으며, 광재우가 망우정 근처에 열린 석류 5개를 선물로 보내오자 이에 사례하는 시도 남겼다.⁴⁶⁾ 광재우와 수창한 많은 시 중에 『梧峯別集』에 실린 작품을 살펴보자.

45) 심경호, 위의 해제, 53~54면. 「新山書院」 2수 중 : 久聞山海擅名區, 天放高蹤獨往遊.

46) 졸고, 위의 논문(2020), 249~252면.

전날 곱과 같이 용맹하던 장수가	疇昔熊羆將
오늘은 난새와 학처럼 고고한 마음	如今鸞鶴情
남극노인성을 맞이하고 보니	相邀南極老
그 명성이 해처럼 길이 빛나네	白日久懸名

곽재우가 졸하기 1년 전인 1616년에 지은 작품으로, 지난 전란 때 의병장이 되어 용맹을 떨쳤다가 전란이 끝난 현재 고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곽재우를 곱·난새와 학으로 그려내었다. 남극노인성은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서에서 장수를 축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곽재우의 업적과 명성을 기리는 말로 쓰였다. 위 시에 이어 실려 있는 아래의 차운시는 제목이 달라 별개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운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같은 수창 자리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누런 먼지 흩날리는 남북의 갈림길에	黃塵南北路
백발의 친구를 떠나보내는 이 마음	白首去留情
강 갈매기에게 말하기 부끄러우니	羞向江鷗說
늘그막에 낮은 벼슬에 매여 산다고	殘年薄宦名

시의 제목은 「곽망우당 어른의 시에 차운하여 자장을 떠나보내다[次郭丈韻 送別子張]」이다.⁴⁷⁾ 子張은 裴大維(1563-1632)의 자이다. 배대유는 鄭述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곽재우와 연합하여 화왕산성을 지켰다. 곽재우가 졸한 뒤 광해군이 致祭하고 傳을 짓도록 명했을 때, 知製敎의 삼자함을 띠고 있던 배대유가 「忘憂先生傳」을 지어 바쳤고 이 傳이 『忘憂集』에 실려 전한다. 배대유를 전별하는 자리에서 신지제는 곽재우의 시에 그를 기리는 차운시로 화답한 뒤, 이어서 갈매기처럼 자유로이 떠나는 배대유에 비해 낮은 벼슬에 연연하고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위 시로 그려내었다.

47) 신지제 著, 위의 책1, 311면.

呂大老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 활동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582년 진사시에 합격할 때까지 누구에게 수학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부친 呂應龜(1523-1577)가 조식의 제자 林薰(1500-1584)·吳健(1521-1574)과 교분이 두터웠고, 조식과 친밀했던 成運(1497-1579)을 흠모하였으니⁴⁸⁾ 남명학맥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합천 군수를 지낸 여대로가 축석루 榜會 때 지은 시에 신지제가 點化한 시이다.⁴⁹⁾

안담에 적힌 이름 모두 뛰어난 사람들	雁塔題名儘勝流
잇달아 높은 벼슬에 뛰어올랐네	聯翩騰踏廣寒樓
한 시대에 호걸들 몇이나 남았는가	一時龍虎幾人在
천고의 산하에서 오늘 저녁 모여 노니네	千古山河今夕遊
금슬 소리는 바람타고 구름 너머 울려 퍼지고	錦瑟風飄雲外響
목란 배는 달빛 아래 거울 같은 물결에 떴네	蘭舟月朗鏡中秋
이제부터 다시 금란계를 맺어서	從茲更結金蘭契
새 비단에다 좋은 놀이의 자취를 써서 남기리	摸取新綃勝迹留

榜會는 같은 해의 같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시에서 여대로가 참여한 축석루의 榜會를 당나라 때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慈恩寺의 大雁塔 아래에 이름을 기록해 넣었던 고사에 비꼈다. 小注에 의하면 이 榜會는 당시 병마절도사로서 진주 목사를 겸하였던 柳止信(1559-?)이 옛날 계미년(1583) 과거에 합격한 同榜들을 축석루에 모아 잔치를 연 것이라 한다.⁵⁰⁾ 1583년 別試에 柳止信은 무과 병과 13위(50/500등)로, 여대로는 문과 을과 4위(5/33등)로 합격하여 同榜에 속하였다. 시축을 만들 때 여대로 또한 同榜으로서 축석루에 들러 읍시를 남긴 뒤 신지제에게 화답을 요구하

48) 김성우, 「간호 여대로와 성산 여씨 기동과의 종족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역사문화학회, 2018, 167~199면.

49) 申之梯, 『梧峯集』 卷2, 「點化呂陝川聖遇, 題癸未榜會臺石樓」.

50) 申之梯, 『梧峯集』, 卷2 : 時兵使柳止信兼晉牧, 會同榜設宴, 因爲契軸. 呂丈以事過臺石, 亦同榜, 因請題軸. 有長律一篇, 要余點化.

였고, 신지제는 1589년 합격자로 비록 그들과 同榜은 아니었지만 여대로의 시에 點化해 주었다.

『梧峯集』에는 여대로의 原詩가 이어서 실려 있어⁵¹⁾ 점화의 과정과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점화란 이전에 지어진 시문에서 사용된 문자나 격식을 본뜨되 참신하게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대로의 原詩와 비교하면, 우선 차운을 피해 같은 운목의 운자를 사용하고 운자의 순서를 바꾸어 형식적인 변화를 보인다. 내용은 원시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大雁塔의 고사를 인용하였지만, 전란 뒤 축석루 앞 남강의 쓸쓸함과 사라진 호걸 대신 승경만 남은 데에서 오는 무상함을 덜어내고 契會 자리의 흥취를 부각시켰다. 여대로의 시에 배인 정적인 여운도 운치가 있지만 시에 생기를 부여한 신지제의 점화 또한 참신하다.

『梧峯集』에 실린 시 중에 신지제와 가장 많은 수창을 한 사람은 朴瑞龜(1546-1623)이다. 조식의 학맥에 속하는 朴瑞龜의 자는 旻夏, 호는 嶽堅, 본관은 密陽, 출생은 鳳城이다. 朴士忠의 아들로, 창원 교수를 맡았으므로 신지제가 그를 ‘廣文’이라고 불렀다. 저술로 『嶽堅詩集』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영애에게 드리다[贈申永崖【之悌】]」라는 시가 있고 신지제의 차운 2수 가운데 1수만 있어⁵²⁾ 시집을 편집할 때 많은 작품이 수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지제가 朴瑞龜와 수창한 시는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의 것만 30여 題가 넘고, 신지제가 다른 이들과 가진 詩會에서도 朴瑞龜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⁵³⁾ 아래는 『梧峯集』의 「檜山雜詠」에서 朴瑞龜와 수창한

51) 신지제 著, 위의 책1, 234면.

안탑에 이름 올린 지 삼십 년 세월
전란으로 쓸쓸해진 강어귀에서 노니네
한 시대에 호걸들 몇이나 남았던가
천고 산하에서 몇진 자취만 남았네
다시 금란계를 맺으니 정이 끈끈하고
곧 저마다 흠어지면 꿈처럼 아득하리
훗날 이 계회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면
축석루의 풍류를 길이 생각하리라

雁塔題名三十秋
兵塵寥落曲江遊
一時龍虎幾人在
千古山河勝迹留
更結金蘭情惓惓
還分雲樹夢悠悠
他年點檢輕綃畫
長憶風流矗石樓

52) 심경호, 위의 해제, 35~36면.

시에 나타난 신지제의 평을 발췌한 것이다.

- | | |
|---|--------------------|
| ① 나라의 귀한 시인을 외지에서 만났으니
백발 늙은이 그대 따라 취해 함께 돌아가리 | 國寶詩流逢塞上
從君白首醉同歸 |
| ② 문인으로서 명망이 영남에서 제일이니
나머지 사람들 모두 메추라기처럼 보이네 | 翰墨聲名擅嶠南
眼中餘子總鷓鴣 |
| ③ 그대 만나 금세 답답한 마음 후련해지니
아름다운 문장마다 옥로 같은 이야기일세 | 逢君頓覺煩襟爽
雲錦章隨玉露談 |
| ④ 사조가 즐기던 경치 제일의 명승지이고
정견이 지은 시는 또 문장의 으뜸일세 | 謝眺風煙元勝地
鄭虔文字更詞宗 |
| ⑤ 악견산 아래 노인이 없었다면
백발 늙은이 누구와 정답게 지냈을까 | 不有嶽堅山下老
白首誰與細論交 |
| ⑥ 문단의 대장이 늘그막에 등단하니
문필의 창칼 범할 수가 없네 | 文林大將老登壇
筆戟詞鋒未可干 |
| ⑦ 일 많은 광문이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니 | 多事廣文來起我 |

53) 신지제 著, 위의 책1, 329면: 「삼월 삼짇날에 잘방 송현승, 광문과 함께 강선대를 유람하니 별장 조방보도 찾아와서 함께하다[三月三日 與察齋未顯承及廣文遊降仙臺 別將趙邦寶亦來與]; 위의 책, 383면, 「뱃놀이에 이민환과 전이성이 온 것에 기뻐하여 광문의 시에 차운하다[舟遊喜而壯性之【全公以性】來 次廣文]; 위의 책, 399면, 「해정에서 한자진, 장문재와 함께 유람하고 광문의 시에 차운하다[海亭同韓子眞張文哉遊 次廣文韻]; 위의 책2, 328면, 「우연히 박 광문이 황회원(황여일)과 ‘糕’자로 수창한 시가 떠올라 그 시에 차운하다[偶記朴廣文與黃會元倡和糕字 仍次其韻]

시험삼아 서간을 펼쳐 시 짓는 법 배우네 試披藤簡學吟哦

⑧ 초로의 시는 비단보다 아름다우니 樵老詩章錦不如
명성은 이른 나이에 세상에 퍼졌네 聲名早世滿方輿

⑨ 보내준 아름다운 시구 날마다 받으니 贈來佳句日相承
땅에 떨어진明珠 밤에 모서리 부서지네 落地明珠暗碎稜

상대의 시문이나 시적 능력을 칭송하는 것은 수창시에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朴瑞龜를 ①의 국보급 시인[國寶詩流]이나 ⑥의 문단의 대장[文林大將]으로 표현하고, ②처럼 문인으로서 명망이 영남에서 제일이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메추라기처럼 보인다는 등, 朴瑞龜의 文才에 대한 후한 평가는 다른 수창자에 비해 유달리 빈번하게 나타난다.

④에서 朴瑞龜의 문장을 으뜸으로 표현할 때 ‘廣文’이라는 직책에 착안하여 廣文館博士를 지낸 鄭度에 빗댄 발상이 참신하다.⁵⁴⁾ 閑職의 광문 朴瑞龜를 가난하여 술을 마시지 못한 鄭度으로, 昌原府使인 자신을 鄭度에게 술값을 대준 蘇源明으로 나타내어⁵⁵⁾ 朴瑞龜와 詩會를 자주 가지고 싶은 마음을 정제하여 가탁한 것도 절묘하다. 변방 창원에서 능력을 펴지 못해 울적하게 지내던 신지제에게 朴瑞龜는 詩情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사였다. 그에게 수창시로 과거 공부를 위한 격려를 해주고⁵⁶⁾ 과

54) 정건은 당나라 玄宗 때의 문인으로 詩·書·畫에 능하여 鄭度三絶로 불렸는데, 현종이 그의 재주를 총애하여 廣文館을 설치하고 博士로 임명하였다. 杜甫 또한 정건과 교유하면서 남긴 시가 있다.(『新唐書』 卷202 「文藝列傳·鄭度」)

55) 소원명은 당나라 때 國子司業을 지냈으며 정건은 廣文館博士를 지낸 인물이다. 정건이 술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가난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면 소원명이 때때로 술값을 대주었다고 한다.(『古文眞寶·前集』 「戲簡鄭廣文兼呈蘇司業」 小注)

56) 신지제 著, 위 의 책1, 262면 : “늘그막이라고 청운의 뜻을 놓지 마시게, 여망 마침내 위수가 벗어났다외[窮途莫墜青雲志, 呂望終非渭上人]” 주나라 文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渭水 북쪽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70세의 여망을 만나 재상으로 등용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史記』 卷32 「齊太公世家」)

거를 보러 가는 길에 응원까지 해준 것은⁵⁷⁾ 朴瑞龜의 탁월한 作詩 역량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梧峯集』의 酬唱詩에 나타난 영남 지역 문인의 다양한 관계망에 주목하여 신지제의 교유와 학맥, 수창 방식 등을 살핀 것이다. 영남 학맥을 안동의 이황을 중심으로 한 洛上의 退溪學, 진주의 조식을 중심으로 한 洛下의 南冥學, 그리고 鄭述와 張顯光을 중심으로 한 洛中의 寒旅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학파의 문인들과 수창한 작품들을 다루었다.

먼저 신지제의 연보 草記와 편집된 연보에 소개된 이황의 直傳 제자들을 비교하여 이황에 대한 편집자의 추송 의식을 파악하고, 『梧峯集』에서 영향 관계를 보이는 퇴계학맥의 문인을 정리하였다. 시문학으로는 이황의 급문제자인 金富倫의 榜會 詩軸에 步韻한 작품에서 김부륜을 스승처럼 여기는 존송 의식이 드러났고, 청량산을 유람하며 金岡과 分韻의 방식으로 수창한 시에서 고산에 은거한 琴蘭秀를 선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洛中 문인으로는 정구의 문하 李潤雨가 불러주는 운[呼韻]으로 지은 시를 분석하여 신지제가 낙중의 문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살피고, 장현광을 중유한 李民成·李民寔 형제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승 관계와

57) 신지제 著, 위의 책2, 230~231면. 「陸游의 시에 차운한 광문의 시에 차운하다[次廣文用陸韻].」[이때 광문이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다.[時廣文將赴試于洛]]

광문 젊은 나이에 명성이 빛나더니	廣文華譽壯年時
저 멀리 서울로 달려가려고 하네	欲向天衢遠馳
만 마리 말을 다 제치고 앞길을 열었고	萬馬空羣開道路
천 명의 군사 쓸어버리고 깃발을 걷었네	千人掃陣捲旌旗
죽엽 향아리 새로 빛은 술을 기울이고	迷罇竹葉傾新釀
금옥 소리처럼 아름다운 옛 시를 읊조리네	擲地金聲誦舊詩
재주와 힘이 아직도 강건하니	才力如今尙強健
앞길의 운수가 기구하지 않으리라	未應前路命偏奇

문학적 교류를 밝혔다. 처가가 있는 咸安 지역의 문인들은 당시 인접한 洛下의 남명학맥이나 洛中의 寒岡·旅軒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신지체는 인척 관계에 있는 趙遵道·趙亨道와 모임을 가지고 시를 지었으며 사촌 처남인 趙任道の 시에 用韻의 방식으로 수창하였다.

이황의 문인에 속하지만 曹植을 존승하는 시도 남겼던 신지체는 조식의 문인 郭再祐·呂大老·朴瑞龜와 수창하였다. 의병 활동으로 맺어진 교류는 전란 후에도 이어져 곽재우와는 裴大維를 전별하는 자리에서 차운시를 주고받았으며, 촉석루 榜會 때의 시를 보여준 여대로에게 點化로 화답하였다. 朴瑞龜는 신지체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가장 많이 수창한 사람으로, 차운시를 통해 朴瑞龜의 文才를 후하게 평하고 작시 역량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의성 출신으로 함안의 조씨 문중을 처가로 두었으며, 전란 후 창원에서 한 동안 고을살이를 했던 이력들은 洛中·洛下의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학맥에 구애되지 않은 교류와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다. 신지체뿐만 아니라 어릴 적 金誠一을 스승으로 섬겼다가 훗날 장현광을 중유했던 이민성·이민환 형제, 鄭經世의 문인으로 정구를 섬겼던 全以性, 류성룡의 아들로서 장현광을 중유했던 柳紜의 사승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창원 부사 재직기의 뱃놀이에서 이민환, 전이성의 참여와 이를 기뻐하며 조식의 문인 박서귀의 시에 차운한 작품에 나타난 관계망은 당대 영남 문인들이 대개 학맥을 뛰어넘는 교류를 맺었음을 시사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영남 문인 전반의 교류와 작품을 다루지 못하였고, 인적·학적 관계에 중점을 두어 신지체의 수창시를 검토하느라 상대적으로 빈약해진 수창 양상의 서술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작가가 처한 상황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문학적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부각시킬 논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 미진함을 면치 못했던 작품 이면의 구체적인 차운 양상, 학맥에 따른 고유한 표현, 생애별 작품에 내재된 의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古文書集成』 권77, 「의성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郭再祐, 『忘憂集』, 『한국문집총간』 제58집.

金富倫, 『雪月堂集』, 『한국문집총간』 제41집.

金 垓, 『近始齋集』, 『한국문집총간·속』 제9집.

琴蘭秀, 『惺齋集』, 『한국문집총간·속』 제4집.

申之悌, 『梧峯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2집.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李民成, 『敬亭集』, 『한국문집총간』 제76집.

李民賓, 『紫巖集』, 『한국문집총간』 제82집.

李潤雨, 『石潭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6집.

呂大老, 『鑑湖集』, 『한국문집총간·속』 제7집.

張顯光, 『旅軒集』, 『한국문집총간』 제60집.

鄭 述, 『寒岡集』, 『한국문집총간』 제53집.

趙任道, 『澗松集』, 『한국문집총간』 제89집.

趙亨道, 『東溪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5집.

2. 단행본

강필임, 『시회의 탄생』, 한길사, 2016.

신수식,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도서출판 성문기획, 2020.

신지제, 『오봉선생문집』1·2, 김기엽·김홍구·천성원 譯, 한국국학진흥원, 2019.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임준철, 『조선중기 한시 의상 연구』, 일지사, 2011.

3. 연구논문

- 강민호, 「압운(押韻)의 미학으로 본 차운시(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원백(元白)과 소식(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제72권, 2012, 49~74면.
- 金紀燁, 「梧峯 申之悌의 生涯와 詩에 表출된 鬱結의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제76호, 한국한문학회, 2019, 337~374면.
- _____, 「申之悌의 詩에 나타난 交遊 양상 연구」, 『민족문화』 5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0, 233~267면.
- 김성우, 「감호 여대रो와 성산 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역사문화학회, 2018, 167~199면.
- 김용현, 「퇴계학파의 여현 장현광 비판에 대한 연구」, 『퇴계학보』 제123권, 퇴계학연구원, 2008, 55~98면.
-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 『한국학논집』 제40권, 계명대한국학연구원, 2010, 105~168면.
-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제38권, 동양예학회, 2017, 63~94면.
- 심경호, 「문자와 매체 : 조선 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제14권,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3~450면.
- 張弼基,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제88호, 한국사학회, 2007, 685~718면.
-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嶺南學』 제21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45~78면.
- 추제협, 「‘한려학파’와 ‘여현학」, 『한국학논집』 제52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59~88면.
- 홍원식, 「조선 중기 낙중학과 정구의 ‘한강학」, 『한국학논집』 제48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7~22면.
-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제69호, 영남문화연구원, 2019, 179~211면.

황병기, 「어헌 장현광의 도맥과 퇴계학 전승의 문제 연구」, 『국학연구』 제23권, 한국국학진흥원, 2013, 37~70면.

4. 참고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http://yn.ugyo.net>

5. 기타 자료

김경희, 「한국문집총간 『敬亭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9.

김성애, 「한국문집총간 『紫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9.

신승운, 「한국문집총간 『퇴계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8.

심경호, 「《梧峯先生文集》 해제」, 『오봉선생문집』1·2, 한국국학진흥원, 2019.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 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구부, 2002.

Abstract

The one Aspect of the Communication within the School of Yeongnam seen through Shin Ji-je's exchanging poems*

GiYeop Kim**

A communication between writers in a region is usually made by or within a group of writers, who forms the particular academic stream, and it has them in its center. Howev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 writer is in, the writer's own literary activities could be continued to proceed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ere were various ways of exchanging poems could be seen.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e human relation network found in Obongjip(梧峯集). Then, the study looked into Shin Ji-je, including his friendship, academic stream, way of exchanging poems and so on by subdividing the school of Yeongnam into Toegye-studies(退溪學) of Naksang(洛上), Nammyeong-studies(南冥學) of Nakha(洛下), Hanryo-studies(寒旅學) of Nakjung(洛中) and so on.

Shin Ji-je(申之悌) is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school of Toegye(退溪) from the poem written for the scroll of poems of Kim Bu-ryun(金富倫) in the way of Rhyme-matching(步韻), and the fact of exchanging poems in the way of Rhyme-sharing(分韻) with Kim Gang(金岡) during the sightseeing to Mt. Cheongryang(清涼山) with Kum Nan-su(琴蘭秀), along with the story between him and Lee Hwang(李滉)'s disciples found in the annals of Toegye. But his literary activities were not limited by his ow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Ph.D. Candidate, Korea University / E-mail: sinchay@hanmail.net

academic stream. He exchanged poems with Lee Yun-woo(李潤雨), the disciples of Jung Gu(鄭述), in the way of Rhyme-Proposing(呼韻). He also had a poetry club with Lee Min-seong(李民成) and Lee Min-hwan(李民奩), who admired Chang Hyeon-gwang(張顯光). In addition, he exchanged poems with Cho Im-do(趙任道), who is his cousin's brother in-law, in the way of rhyming words(用韻), interacting with writers in Haman where his in-laws lived. As stated above, It is clear that he also actively interacted with writers of Nakjung(洛中)

Furthermore, with his poem on showing respect for Cho Sik(曹植), he exchanged poems with Kwak Jae-woo(郭再祐), Yoe Dae-ro(呂大老) and Park Seo-gui(朴瑞龜) in the school of Nammyeong(南冥) and among them, Park Seo-gui was the one he exchanged most poems with, when he served as the magistrate in Changwon(昌原). Uiseong-born Shin Ji-je was married to the one from Cho clan residing in Haman, and he served a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in Changwon for the considerable amount of time before going back to his hometown following the wartime. His particular position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him which he was encouraged to socialize with writers of Nakjung(洛中) and Nakha(洛下) ultimately allowed him to interact with writers and produce literary output regardless of academic stream.

Keywords: Exchanging Poems(酬唱), School ties(學脈), Yi-Hwang(李滉),
Jo-Sik(曹植), Jeong-Gu(鄭述), Jang Hyeon-Gwang(張顯光)

논문접수일 2020.07.15. / 심사기간 2020.07.16.~2020.08.23. / 게재확정일 2020.08.24.

